

9월의 기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13절>



-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DCEM 성회안내

2017년 10월 23~25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개최되는 순복음일본총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오사카순복음교회 (정대원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문경섭, 박예림, 오주봉, 원소선, 이금란, 이시은,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 목사), 정경자, 최민철, Michelle McQueen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율법과 사랑

복음주의 전도자 프레드 브라운(Fred Brown) 목사는 율법의 목적을 묘사하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율법은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조그만 거울 달린 도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울은 썩은 이가 있는지 없는 지 볼 수만 있을 뿐 충치를 뽑지도 때우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만 있을 뿐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둘째, 율법은 손전등과 같습니다. 손전등은 정전이 되어 집이 어두울 때 두꺼비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손전등이 두꺼비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찾아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율법은 다림줄과 같습니다. 다림줄은 집을 지을 때 벽돌과 기둥이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지 살피기 위해 내려 보는 줄입니다. 그러나 다림줄은 측량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잘못된 것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삶이 바른지 그른지를 찾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직접 고치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원칙에 따라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살려내고 고치지는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실한 의미는 정죄하여 심판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해서 심판하여 내어 쫓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율법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 내용이 되지 않으면 흉기가 됩니다. 율법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September News Letter

Blessing Hong Kong 2017 “강력한 성령 바람, 홍콩 넘어 중국으로!”

아시아국가 목회자 및 성도 대거 참석 ‘영적유산. 치료해방. 성령충만’ 주제로 진행 홍콩, 중국을 향한 선교 교두보 될 것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를 초청 ‘블레싱 홍콩 2017 미라클 콘퍼런스’ 축복 대성회가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아레나(AWE)에서 개최됐다.

홍콩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이 주관한 이번 성회는 ‘영적유산의 밤, 치료 해방의 밤, 성령 충만의 밤’을 주제로 홍콩 복음화는 물론 중국 대륙을 향한 선교를 목표로 열렸으며 성령 충만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

성회 하루 전날인 8월 27일 홍콩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보가 있어 성회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홍콩을 비롯한 대만, 마카오 등 아시아 중화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 어떤 태풍도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듣고자 7000

여 명의 목회자들이 사전등록을 하였으며, 연인원 5만 여 명이 성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8월 29일 참석자들의 환호 속에 등단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꿈과 비전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마음에 비전이 있다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다.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을 피력하며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당신을 죽이고 망가뜨릴 기회만 엿본다. 마귀가 나에게 두려움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물러가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치료 받았다’고 믿으면 치료가 일어난다”며 성회에 참석자들이 구원의 확신과 치료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긍정적, 창조적인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지우피홍 성도는 “성회 소식을 듣고 이동이 힘들었지만 참석했다. 신유기도를 통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꼈다.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를 연속 성회에 참석한 파카 성도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 4차원의 영성 설교를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다. 두 분 목사님을 가까이서 뵈고 설교를 들으니 용기가 생긴다. 앞으로 꿈과 비전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블레싱 홍콩 2017 축복 대성회’는 아시아에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적 축제였다. 또한 단순한 축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13억 중국의 복음화라는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이 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하여 걱정과 불안이 많은데, 전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은퇴라는 단어로부터 무엇을 떠올리느냐?”라는 질문에 선진국에서는 자유, 만족,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두려움, 외로움을 떠올린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1.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건지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사크’인데 이것은 ‘꼭 달라붙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속에서나, 물속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오려면 큰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시내에 물이 넘치기 때문에 저는 못 건너 옵니다. 그러나 시내 근처에 고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고모 아버지는 키가 크고 몸집이 큼직하고 얼굴이 핏기가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고모 집으로 가서 “고모 아버지 나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그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등에 업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오면 고모 아버지 등에 업힐 때

전지고 채우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냥 업히면 안 됩니다. 물이 아주 무섭게 넘치기 때문에 찰싹 붙어야 되요. 하사크입니다. 찰싹 붙어가지고서 목을 손으로 꼭 끼고 있으면 고모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한발자국, 두발자국 가는데 온 천지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으나 무사히 도랑을 건너갑니다. 항상 비판 오면 우리 고모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찰싹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하사크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달라붙은 여러분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채우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뜻하는 그릇은 소망과 꿈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바로 꿈과 소원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유가 백성이 꿈이 없으면 그릇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는데 꿈과 소원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32

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빗쟁이가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이 있는데 기름 조금 담겨있는 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두 아들에게 명령해서 온 동네에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오너라. 빌려오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집에 그릇을 전부 줄을 세워놓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온 동네에 “혹시 그릇이 있습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온 마당과 부엌과 방에 그릇이 아주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 후 그릇에 기름병의 기름을 붓는데 한이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 “아들아, 또 기름 담을 그릇 가져오너라.”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기름이 그쳐버리고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마태복음 6장 2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 나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때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되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분의 은혜를 넘치도록 퍼부어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꿈을 ‘하사크’하고 확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 등을 확 끌어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 잘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건지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에 감사를 드리며 철저히 주님과 하나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홍콩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성회

“긍정적 믿음·간절한 기도·넘치는 감사... 승리의 첩경”



홍콩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7%.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홍콩은 대륙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여러 가지 정치, 경제문제로 홍콩 사람들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다. ‘블레스 홍콩 2017 축복 대성회’는 이러한 홍콩 목회자들과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영적 태풍으로 몰아쳤다. 조용기 목사의 ‘희망’과 이영훈 목사의 ‘성령 충만’ 메시지를 받은 참석자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중화권 선교를 위해 힘을 다짐했다.

지난 8월 29일 250여 명의 아시아 목회자들과 실업인이 함께 메리어트호텔 연회장에서 오찬을 가졌다.

조용기 목사는 이날 목회자들과 실업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고침의 사역이었다. 나는 오래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꿈을 가졌다.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만큼 성령을 강조한 분은 없었다. 또한 곁에서 봐온 조용기 목사님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긍정을 말씀하셨다”며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4차원의 영성으로 표현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큰 기적이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는 29일 오전 홍콩순복음교회(담임 윤창재 목사) 성도들과 초찬모임을 갖고 성도들을 격려했다.

이번 성회에는 아브라함 쿠, 발콤, 장마오 송 목사와 최명우, 김용준, 주성민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고, 여의도순복음 교회에서는 김종복(4차원연합회장), 정인욱, 임익주 장로, 윤석호 목사(CGI)가 함께했다.

또한 순복음동경교회 DCEM임원 7명의 (Mr. Yukio KIYOTA, Mr. Mirai NAITO, Mr.

Tetsuo TAKEISHI, Mr. Masakazu ENDO, Mrs. So young YOON, Mrs. Minju JUNG, Mr. Mongbin JIN) 성도들이 이번 성회에 참석하여 총재 조용기 목사와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으로써 세계 선교에 힘이 되어 주었다.

특별히 이번 성회에는 순복음강남문화예술포럼이 동행해 전통선교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의 멋을 널리 알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성회는 홍콩의 목회자들이 새 힘을 얻고, 홍콩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중국 대륙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